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제14회 무등기 고교야구

〈대회 3일째〉

김민석 대회 사상 첫 노히트 노런

대구상원고 〈옛 대구상고〉

안산공고 상대 고교 통산 15번째 대기록 순천 효천고·장충고 가볍게 16강 진출

‘대구대표’ 상원고가 ‘에이스’ 김민석의 대회 첫 노히트 노런을 앞세워 안산공고를 가볍게 꺾고 16강에 안착했다. ‘디펜딩 챔피언’ 진흥고는 ‘서울 강호’ 장충고에 0-9로 맥없이 무너졌고, 순천 효천고는 ‘미니군단’ 김해고를 5-2로 누르고 16강에 합류했다.

대구상원고(옛 대구상고)는 13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안산공고와의 3일째 1차전에서 노히트 노런의 대기록을 달성한 김민석의 완봉투에 힘입어 6-0으로 승리했다.

김민석은 9이닝 동안 볼넷 두 개를 내줘 퍼펙트 기록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6탈삼진을 속이내는 위력투로 안산공고의 방망이를 ‘무장해제’ 시켰다. 노히트 노런은 1명의 투수가 9회까지 상대 팀을 무안타 무득점으로 막아 이긴 게임을 뜻한다. 한국 고교야구 사상 15번째고, 창설 14년째를 맞은 무등기 대회에선 처음이다.

순천 효천고 5-2 김해고

순천 효천고는 3회 김항길과 채은성의 연속 볼넷으로 만든 1사 1, 2루에서 4번타자 이재욱의 우전 적시타로 지루한 ‘0’의 행진을 꺾었다.

효천고는 5회에도 1사 만루 득점찬스에서 진명호의 중전안타와 최우성, 이지훈의 득점타로 4점을 더 보태며 경기의 흐름을 장악했다.

팀원이 겨우 9명에 불과한 ‘미니부대’ 김해고의 끈질긴 승부근성도 돋보였다.

김해고는 9회말 선두타자 김중철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조성훈의 내야안타 등을 묶어 2점을 뽑아냈고, 이어진 공격에서 2사 만루의 역전찬스까지 잡아냈다. 그러나 8번 공격권이 삼진으로 물러나며 아쉽게도 1회전 탈타의 고배를 마셨다. 효천고 선발 오호성은 7.1이닝동안 9탈삼진을 속이내며 4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대구상원고 6-0 안산공고

대구상원고 선발 김민석은 9회까지 안타없이 노히트 노런을 기록, 팀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타선도 장단 14안타를 터트리며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상원고 타선은 1회에만 노윤동의 3루타를 시작으로 3안타와 상대 실책을 묶어 3점을 뽑아낸 뒤 4회엔 김민석의 3루타와 노윤동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했다.

다. 6회에 김민석의 2루타로 또 다시 포문을 연 상원고는 윤문영의 보내기 번트와 백승민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한 뒤 9회 연고 구단인 삼성의 2008년 신인 1차 지명을 받은 중견수 우동균의 2루타와 김정수의 좌전안타, 장경식의 희생 플라이를 묶어 승부에 쐬기를 박는 1점을 보탤었다.

장충고 9-0 진흥고

박빙 승부로 예고된 지난해 무등기 우승팀 진흥고와 ‘서울강호’ 장충고의 대결은 예상과 달리 심겁게 끝났다. 장충고의 9-0 압승.

진흥고는 에이스 임요한의 제구력 불안과 타선의 빈타가 얹히면서 참패했다. 선발로 나선 임요한은 7이닝동안 8피안타와 볼넷 2개, 폭투 1개를 기록하며 6실점(4자책점)했고, 팀 타선은 3안타에 그치면서 ‘영봉패’의 수모를 당했다.

장충고는 1회부터 선취점을 뽑아내며 진흥고를 압박했다. 3회와 4회에 연속 2점씩을 추가한 장충고는 8회에도 대거 4점을 얻어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의 무등기 야구

16강전
광주일고-총암고(10시)
부경고-제물포고(12시30분·KBSN 중계)
인창고-유신고(15시)
동성고-선린인터넷고(17시30분)

■ 내일의 무등기 야구

16강전
청주기공-공주고(10시)
중앙고-효천고(12시30분·KBSN 중계)
제주관광산업고-상원고(15시)
서울고-장충고(17시30분)
〈앞쪽이 선공·1루쪽 더그아웃·이상 무등경기장〉

■ 딱 9명, 최소 인원으로 출전한 김해고

수비맨 더그아웃 ‘썰링’ 승리향한 열기는 ‘후끈’

순천 효천고와 김해고의 예선경기가 한창인 13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동료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와야 할 김해고의 더그아웃에는 어떤 일인지 단 한사람도 없던 적막하기까지 했다.

올 초 부임한 유두열 감독을 사령탑으로 무등기에 참여한 김해고 선수는 총 9명(3학년 7명·1학년 2명), 야구 경기에 필요한 한 팀의 최소 인원이었다. 김해고 수비 맨 더그아웃이 텅 빌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8강을 목표로 참가한 김해고는 후보 선수없이 전원이 경기에서 나서야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오전 10시 경기시작을 앞두고 김해고 선수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효천고가 3회에 선취점을 뽑으며 영의 균형이 깨진 뒤 5회 4점을 더 내주고 5대0으로 패색이 짙어져 가던 9회, 김해고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결의가 선수들의 얼굴에 드러났다.

상대수비수의 실책과 공이 베이스를 맞고 튀어오르는 등의 행운이 따르며 2점을 쫓아갔고 9회말 투아웃 만루 상황까지 만들었다.

극도로 긴장된 순간에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팀의

막내인 1학년 공격투수였다. 더그아웃에 있는 선배들의 격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관중석의 응원소리도 높아졌지만 결과는 헛스윙 삼진.

아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선수들을 유 감독이 격려하고 나섰다.

“아무래도 경험부족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좋은 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선수들도 이런 경기를 통해 자신감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꼴등입니다. 하지만, 9명이 가족처럼 똘똘 뭉쳐 야구를 하는 우리의 열정만은 1등입니다”

유감독도 애써 아쉬움을 달랬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나지 않은 3학년 선수들의 진로와 팀 운영문제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선발투수로 나섰던 주장 하해웅 선수는 “9명 모두 똘똘 뭉쳐 정말 열심히 무등기를 준비했는데, 연습 때보다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김해 내동중 동생들도 9명의 인원으로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형들이 동생들에게 뒤쳐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며 굵은 땀방울을 닦아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일 무등기 야구대회 사상 최초로 노히트노런을 기록한 대구상원고 투수 김민석.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히어로 대구상원고 투수 김민석

“편안하게 던진게 주효”

올해로 창설 14년째를 맞은 무등기 고교야구대회에서 대회 첫 노히트 노런의 대기록이 작성됐다. 주인공은 대구상원고 3학년 우완 정통파 투수인 김민석(19).

13일 김민석이 던진 공은 총 120개, 최고구속은 137km에 불과했으나, 스트라이크존 구석 구석을 파고드는 체인지업(평균 시속 125km)과 슬라이더(130km)가 일품이었다.

김민석의 노히트 노런 기록은 고교대회 역대 15번째로, 가장 최근에는 올 4월 열린 대통령배에서 효천고를 상대로 4-0 승리를 거둔 제주관광고의 김수원이 기록했다.

부산출신으로 187cm, 85kg의 건강한 체격을 지닌 김민석은 부산 미남초고 5학년때 부산 마린스 리틀야구단에서 타자로 야구에 입문, 부산 사직중을 거쳐 부산고 2학년때 대구 상원고로 전학한 뒤 당시 기량 미달 등을 이유로 1년을 유급하며 본격적인 투수수업을 받았다. 김민석은 “편안한 마음으로 던졌다. 7회부터 노히트 노런이 의식되긴 했으나 욕심을 버리고 전력투구를 했고, 마지막 타자를 상대할 때도 편안하게 정면승부를 했다”면서 향후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무등기 대회 우승이 첫 번째고, 롯데 구단에 입단하는 게 마지막 목표”라고 말했다.

김민석을 지도하고 있는 상원고 박은진 투수코치(50)는 “민석이는 겁이 없고 공격피칭을 하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무등기 참관 김준환 원광대감독

“아마 야구에선 기본기 충실해야”

“제 야구 인생의 화려한 무대였던 이곳에서 야구를 위해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김준환 원광대 야구감독이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참관을 위해 1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아 야구 대선배로서 포부를 밝혔다.

“시간 나는 틈틈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주고, 뜻있는 원로들과 장학사업도 하면서 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감독은 당대 최고의 홈런 타자 김성한·김봉연과 함께 옛 해태타이거즈에서 ‘K트리오’라고 불리는 공포의 타선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로, 1987년 한국시리즈 3·4차전에는 연거푸 홈런포를 쏘아 ‘87년 한국시리즈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호남야구 부흥기 때 야구를 했는데 그 당시 아마야구 인기는 굉장했었습니다. 72년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때려던 끝내기 안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고를 상대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때린 좌전안타는 그를 ‘역전의 명수’로 만들었다. 매서운 방망이 실력에 178cm의 훗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를 겸비한 그는 군산상고 시절부터 여학생들을 뿔고 다니던 ‘스타선수’였다.

생방울에서 프로야구 감독을 했던 그는 모기업의 부도로 2001년 야구계를 떠났다가 2003년 원광대 야구부 감독을 맡아 아마야구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프로와 아마 야구 감독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가 기술적인 부분에 신경 써야 한다면 아마는 기본기를 강조하죠. 늘 선수들에게 ‘기본기에 충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야구에 대한 후배들과 사람들의 무관심이 아쉽다며 “후배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말고 장기적으로 야구를 보고 오래 야구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